LERI 경제전망과 정책과제 Vol.19-3

2009년 경제전망과 정책과제

2009. 10.

한국경제연구원

집 필 진

허 찬 국　　선임연구위원
김 창 배　　부 연 구 위 원

< 차 례 >

요 약 ····· Ⅳ

제Ⅰ장 최근 경제동향 및 평가 ····· 1

1. 최근 경제동향 ····· 3

(1) 성장률 ····· 3

(2) 생산 ····· 4

(3) 소비 ····· 5

(4) 투자 ····· 6

(5) 수출입 및 경상수지 ····· 8

(6) 물가 ····· 10

(7) 고용 ····· 11

(8) 금융시장 ····· 12

(9) 원/달러 환율 ····· 13

2. 현 경기상황에 대한 종합 평가 ····· 15

제Ⅱ장 국내경제전망 ····· 17

1. 대내외 여건 ····· 19

2. 2010년 국내경제전망 ····· 24

제Ⅲ장 정책과제 ····· 31

1. 정책 우선순위 정립 필요 ····· 33

2. 당면 정책과제 ····· 38

부 록 ····· 41

< 표 차 례 >

〈표 Ⅰ-1〉 경상수지 ····· 9
〈표 Ⅰ-2〉 GDP성장률 및 정부부문 기여도 ····· 15
〈표 Ⅱ-1〉 IMF와 OECD의 주요국 성장률 전망 ····· 20
〈표 Ⅱ-2〉 해외 주요기관의 유가 전망 ····· 20
〈표 Ⅱ-3〉 주요 해외투자은행들의 환율전망 ····· 21
〈표 Ⅱ-4〉 2005~2010년 재정규모 ····· 22
〈표 Ⅱ-5〉 전망의 주요 전제조건 ····· 23
〈표 Ⅱ-6〉 설비투자조정압력 및 제조업 평균가동률 추이 ····· 26
〈표 Ⅱ-7〉 2005~2010년 SOC 예산 ····· 27
〈표 Ⅱ-8〉 미분양 주택현황 ····· 27
〈표 Ⅱ-9〉 2009~2010년 국내경제전망 ····· 29

<그림 차례>

〈그림 Ⅰ-1〉 GDP증가율 ····· 3
〈그림 Ⅰ-2〉 부문별 성장 기여도 ····· 3
〈그림 Ⅰ-3〉 산업생산 ····· 5
〈그림 Ⅰ-4〉 서비스업 활동 ····· 5
〈그림 Ⅰ-5〉 소비재 판매액 ····· 6
〈그림 Ⅰ-6〉 유형별 소비재 판매액 ····· 6
〈그림 Ⅰ-7〉 설비투자 ····· 7
〈그림 Ⅰ-8〉 유형별 설비 ····· 7
〈그림 Ⅰ-9〉 건설투자 ····· 7
〈그림 Ⅰ-10〉 발주자별 건설 ····· 7
〈그림 Ⅰ-11〉 수출 ····· 8
〈그림 Ⅰ-12〉 수입 ····· 8
〈그림 Ⅰ-13〉 소비자 · 생산자 물가 ····· 10
〈그림 Ⅰ-14〉 수입물가 ····· 10
〈그림 Ⅰ-15〉 취업자 증감 및 실업률 ····· 11
〈그림 Ⅰ-16〉 산업별 취업자 증감 ····· 11
〈그림 Ⅰ-17〉 국고채 및 회사채 ····· 12
〈그림 Ⅰ-18〉 CD 및 CP금리 ····· 12
〈그림 Ⅰ-19〉 코스피 및 코스닥 추이 ····· 13
〈그림 Ⅰ-20〉 외국인 순매수 ····· 13
〈그림 Ⅰ-21〉 원화 환율 ····· 14
〈그림 Ⅰ-22〉 對달러 환율 ····· 14
〈그림 Ⅰ-23〉 주요국 수출 ····· 16
〈그림 Ⅰ-24〉 주요국 통화가치 ····· 16
〈그림 Ⅱ-1〉 최근 주요국 성장률 추이 ····· 19
〈그림 Ⅱ-2〉 실질GDP증가율(반기별) ····· 24
〈그림 Ⅲ-1〉 우리나라의 유동성갭 비율 추이 ····· 36
〈그림 Ⅲ-2〉 1997년 전후의 실질GDP와 추세 ····· 38

Ⅰ. 최근 경제동향 및 평가

1. 최근 경제동향

■GDP증가율: 전기비는 2분기 연속 플러스, 전년동기비는 감소세 완화
– 전기비(%): -5.1(2008. 4/4Q) → 0.1(2009. 1Q) → 2.6(2Q)

– 전년동기비(%): -3.4(2008. 4Q) → -4.2 (2009. 1Q) → -2.2(2Q)

– 순수출 성장기여도는 수입감소에 힘입어 큰 폭 증가, 내수부문도 감소폭 축소

■제조업 생산: 하반기 들어 개선흐름 둔화
– 1월 이후 7개월 연속 플러스를 보이던 전월비 증가율이 8월(-1.3%)에는 감소

– 반도체 및 부품, 자동차 등의 호조로 중화학공업이 7~8월 중 증가세로 반전된 반면 경공업은 마이너스 증가율 지속

■서비스업 생산: 개선속도 둔화
– 전월비 증가율: -0.6%(7월) → -0.6%(8월)

■소비재 판매액: 7~8월 중 둔화
– 전월비는 감소세로 반전: 4.9%(5월) → 2.0%(6월) → -1.7%(7월) → -0.3%(8월)

– 자동차 세제지원 축소 등으로 내구재소비가 감소세로 반전된 데 기인

■설비투자: 5~6월 회복세를 보였으나 7~8월 중 다시 하락
– 자동차 세제지원 축소로 운송장비 투자가 다시 부진해진 데 기인

■건설투자: 7~8월 하락세
– 공공부문 건설증가에도 불구하고 민간부문 부진으로 7~8월 중 감소

■수출: 회복 속도 둔화
– 수출증가율, 일평균수출금액이 소폭 하락하는 등 수출 개선흐름 약화
  • 수출증가율(전년동기비%): -25.2(2009. 1Q) → -20.5(2Q) → -21.2(7~8월)
  • 일평균수출액(억 달러): 11.0(2009. 1Q) → 13.1(2Q) → 12.7(7~8월)

■수입: 점진적인 회복세
– 환율하락, 유가상승, 내수반등의 영향으로 수입(달러금액)이 점진적인 회복세
  • 수입증가율(전년동기비%): -32.7(2009. 1Q) → -36.1(2Q) → -33.9(7~8월)
  • 일평균수입액(억 달러): 10.6(2009. 1Q) → 10.5(2Q) → 11.4(7~8월)

■경상수지: 1~8월 중 281억5천만 달러 흑자
– 흑자폭은 감소하는 추세(억 달러): 54.3(6월) → 43.6(7월) → 20.4(8월)

■소비자물가 상승률: 7월을 저점으로 반등
– 8~9월 유가상승, 경기회복 기대감 등으로 물가상승률이 소폭 반등
  • 소비자물가(전년동월비%): 2.0(6월) → 1.6(7월) → 2.2(8월) → 2.2(9월)

■고용지표: 추경을 통한 일자리 사업으로 소폭 개선
– 취업자 수 감소세 완화: 6월과 8월 증가세 시현
  • 취업자 증감(천 명): -219(5월) → 4(6월) → -75(7월) → 3(8월)

■시장금리: 경기회복 기대, 정책금리 인상 기대를 반영하여 오름세
– 국고채(3년,%): 4.09(6월) → 4.09(7월) → 4.42(8월) → 4.40(9월)

■원화가치, 3월 이후 강세로 전환
– 경상수지 흑자, 외화자금 조달 여건 개선, 외국인 주식순매수 등으로 강세
  • 원/달러: 1,261(6월) → 1,264(7월) → 1,238(8월) → 1,219(9월)

2. 현 경기상황에 대한 종합 평가

■상반기 중, 생산 및 수요의 개선흐름으로 침체국면을 빠르게 벗어나는 모습
– 제조업 생산이 1월 이후 꾸준한 증가세, 서비스업도 4월 이후 증가세 유지
  • 수요측면에서도 소비, 건설, 수출 등이 개선
  • 실질GDP가 2분기 전 분기 대비 2.6% 증가

■향후 개선 추세는 지속되겠으나 속도는 완만해질 전망
– 상반기 회복세의 상당부분 재정지출 및 세제지원 효과, 환율효과에 의존
  • 정부부문의 소비와 투자가 2009년 1분기와 2분기의 성장률을 각각 1.8%p, 1.9%p 정도 제고시킨 것으로 평가됨.
  • 원화가치가 상반기 중 전년동기비 36.8% 하락한 것도 수출감소세 완화에 기여

– 환율효과와 재정효과가 축소되었을 경우 현 회복국면은 다소 약화될 가능성
  • 실제로 7~8월 중 소비 및 투자 지표들의 개선추세가 약화
  • 수출의 경우도 8월 감소세가 확대

Ⅱ. 국내경제전망

1. 대내외 여건

■세계경제, 내년 약 3% 성장세 회복
– 하지만 출구전략 시행 등으로 선진국의 회복세는 대부분 1%대에 그칠 전망
  • 또한 보호무역주의 확산, 고용부진에 따른 미국 등 선진국의 소비회복 지연 등은 세계경제 회복세의 하방위험으로 작용

■국제유가, 제한적인 상승세
  • 세계경제 성장률이 플러스로 기대되는 내년 중 원유수요 증가 전망
  • 하지만 세계경제의 완만한 성장세, 글로벌 달러 약세 기조 완화 등으로 상승폭은 크지 않을 전망

■원/달러 환율, 완만한 하락세 지속

– 2010년에도 원/달러 환율의 하락세가 지속되겠으나 경상수지 흑자 축소, 글로벌 달러 약세 기조 완화 등으로 하락속도는 완만할 전망

■내년 예산, 2009년 본예산 대비 2.6% 증가

– 총지출 기준으로 291조8천억 원이며 이는 예년에 비해 낮은 증가율
  • 2009년 본예산(284조5천억 원)에 비해서는 2.6% 증가
  • 2005~2009년 평균 예산증가율 7.9%에 비해 크게 낮은 증가율

■이상의 대내외 여건을 기초로 전망의 전제조건을 다음과 같이 설정

<표 1> 전망의 주요 전제조건

외생변수	단위	2009년	2010년
중국성장률	%	8.5	9.0
일본성장률	%	−5.4	1.7
미국성장률	%	−2.7	1.5
두바이 유가	$/bbl	62.0	75.0
기준금리(기말)	%	2.00	3.00
원/달러 환율(평균)	원/$	1,279	1,145

2. 2010년 국내경제전망

■경제성장률: −0.8%(2009년) → 3.2%(2010년)

– 2010년 성장률은 세계경제의 회복세, 기저효과 등으로 플러스가 예상되지만 재정효과 소멸 등으로 연간 3.2%에 그칠 전망
  • 반기별로는 재정효과 및 환율효과가 특히 약화되는 상반기(전기비 0.5%)에 비해 하반기(전기비 2.7%)가 높은 W자형의 회복국면이 예상됨.

■민간소비: −0.4%(2009년) → 2.9%(2010년)

– 2010년 민간소비는 고용 및 임금개선, 환율 하락, 자산가격 상승 등으로 올 하반기

이후의 회복세를 이어가겠지만 금리인상 및 물가상승 등이 구매력 제약요인으로 작용하면서 성장률보다는 낮은 증가율(2.9%)을 보일 전망

■설비투자: -14.5%(2009년) → 9.0%(2010년)

– 2010년 설비투자는 국내외 경기 회복, 정부의 투자 인센티브, 환율하락 등에 따른 투자여건 개선과 2008~2009년간 투자부진으로 인한 투자압력 상승으로 9%의 비교적 높은 회복세를 보일 전망

■건설투자: 3.5%(2009년) → 1.3%(2010년)

– 2010년 건설투자는 SOC 투자증가세 정체, 민간건설의 완만한 회복세 등으로 1%대의 낮은 증가율을 기록할 전망

■경상수지: +304억 달러(2009년) → +131억 달러(2010년)

– 2010년 경상수지는 수출보다 빠른 수입증가로 흑자규모가 2009년에 비해 크게 축소될 전망

• 수출(달러금액)은 세계경기의 완만한 회복세에 따른 수요 증가, 주요 수출품의 단가상승에 힘입어 약 10%의 증가세를 보일 전망

• 수입(달러금액)은 국내경기 회복, 수출용 수입 증가, 환율하락, 단가상승 등에 힘입어 수출보다 빠른 약 16%의 증가세를 보일 전망

■소비자물가: 2.9%(2009년) → 3.0%(2010년)

– 2010년 소비자물가는 연간 약 3.0%의 물가안정목표 내의 상승률을 보일 전망

• 경기회복세가 완만해 수요측면의 상승요인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환율하락세가 유가상승 등 비용요인을 일부 상쇄할 것으로 예상

■시장금리(회사채수익률): 5.8%(2009년) → 6.1%(2010년)

– 시장금리는 기준금리 인상, 경기회복 및 물가상승에 대한 기대감으로 점진적인 상승세를 보일 전망

<표 2> 2009~2010년 국내경제전망

(단위: 전년동기비(%), 억 달러(국제수지부문))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연간	상반기	하반기	연간	상반기	하반기	연간
GDP	2.2	−3.2	1.5	−0.8	3.1	3.2	3.2
(SA, 전기비%)		−1.2	2.6		0.5	2.7	
민간소비	0.9	−2.6	1.8	−0.4	3.4	2.3	2.9
건설투자	−2.1	2.8	4.0	3.5	−0.1	2.5	1.3
설비투자	−2.0	−19.5	−9.2	−14.5	8.7	9.2	9.0
수출(재화+서비스)	5.7	−7.1	1.4	−2.9	8.0	5.4	6.6
수입(재화+서비스)	3.7	−15.9	−3.6	−9.9	10.0	8.5	9.2
소비자물가	4.7	3.4	2.5	2.9	2.8	3.1	3.0
생산자물가	8.6	1.5	−1.4	0.0	2.8	2.4	2.6
경상수지(억 달러)	−64.1	217.5	86.6	304.1	81.2	49.7	130.9
상품수지(억 달러)	59.9	259.8	141.9	401.7	148.7	103.8	252.5
수출(억 달러, BOP 기준)	4,334.3	1,679.5	1,872.9	3,552.4	1,900.6	1,997.0	3,897.6
증가율%	14.3	−24.1	−11.8	−18.0	13.2	6.6	9.7
수입(억 달러, BOP 기준)	4,274.3	1,419.7	1,730.9	3,150.7	1,752.0	1,893.2	3,645.2
증가율%	21.8	−34.5	−17.9	−26.3	23.4	9.4	15.7
서비스 · 소득 · 이전수지	−124.0	−42.2	−55.3	−97.6	−67.5	−54.1	−121.5
환율(원/달러, 평균)	1,099.5	1,352.0	1,205.0	1,278.5	1,150.0	1,140.0	1,145.0
회사채수익률(3yrs, AA−)	7.1	6.1	5.6	5.8	5.9	6.3	6.1
실업률(%)	3.2	3.8	3.7	3.7	3.8	3.5	3.6

Ⅲ. 정책과제

■글로벌 위기 종식 이후, 정책 최우선 목표는 저하된 성장잠재력 복원

– 부동산가격 안정은 경제정책의 최우선 순위가 될 수 없으며 금리인상은 집값안정을 위한 실효성 있는 수단으로 한계
  • 부동산가격 안정이 성장잠재력 제고, 고용상황 개선, 균형발전 등에 비해 우선순위에 있다고 보기는 무리
  • 금리정책만으로는 집값안정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금리 외에도 보다 더 직접적인 정책수단이 함께 동원되어야 할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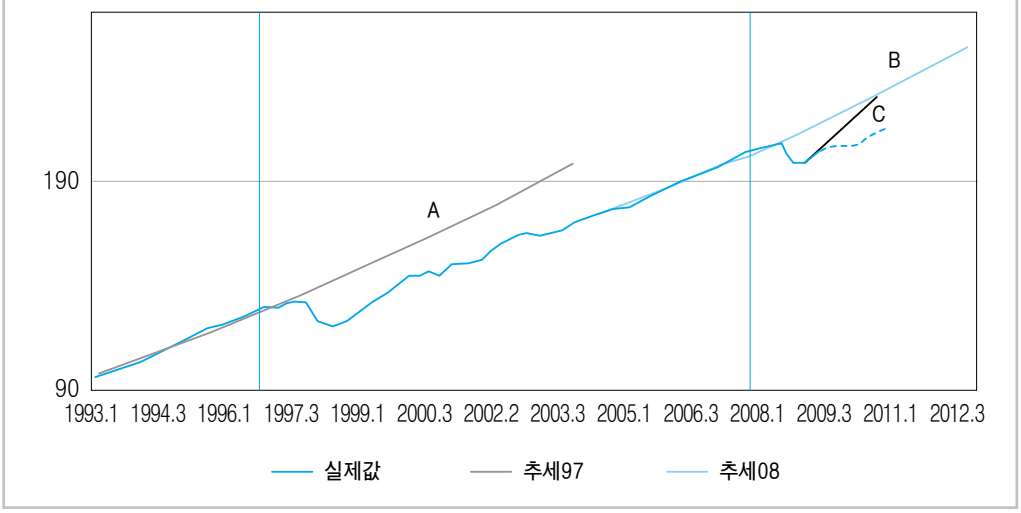
– 유동성 과잉이라는 시각도 '정책 축소 및 철회'가 완료되면 완화될 것이어서 설득력이 미약
  • 유동성 비율이 크게 증가한 시기는 1998년과 2008년의 위기기간으로 당국의 정책대응에 따른 당연한 유동성의 증가에 기인

– 1998년 이후 우리 경제의 성장추세는 크게 낮아졌으며 이번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도 성장률 저하 현상이 재연될 가능성
  • 외환위기 이후 실질GDP(굵은 실선)가 '추세선 A'(가는 실선)에 복귀하지 못하면서 이후 추세성장률은 하락(추세선 A의 평균성장률 7.4% → 추세선 B의 평균성장률 4.7%)
  • 만약 성장추세 저하를 자연스러운 '새로운 균형'이라는 시각으로 수용할 경우 잠재성장률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추가적 하락이 불가피
  • 만약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이는 한국경제가 개인소득 2만 달러 이하의 수준에 영구적으로 수렴할 것임.

– 따라서 2008~2009년 위기에 따른 산출량 손실은 수용하되 향후 목표는 2007년까지의 추세 성장률을 회복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함.
  • 올해의 재정확대는 경제위기 시 추가적인 침체를 완화하는 데 기여했지만 성장잠재력 복원을 위해서는 민간부문의 자생력이 뒷받침되어야 함.
  • 따라서 성장잠재력 복원을 위한 근본적인 해법은 노동시장 유연성, 규제개혁 등

기업경영환경을 개선을 통한 투자와 고용의 확대임.

<그림 1> 1997년 전후의 실질GDP와 추세



■당면 정책과제

– 금리인상은 신중하게 접근
  • 경제구조 개선이나 다각적인 집값안정 대책 없이 금리만 인상되면 비용증가에 따른 부담증가 악영향이 더 부각되고 경제활동 위축, 서민경제 위축에 따른 지원 요구 증대 등 부작용이 커질 수 있음.

– 상환책임을 중시하는 신용지원 정책 수립
  • 민생안정 및 복지강화에 필요한 정책수립이라고 해서 상환능력 및 책임을 중요시하는 정상적 신용질서를 약화시키는 것은 위험

– 한은법 논의, 금융산업 재편과 감독체계 재구성 검토와 병행되어야
  • 한은법 개정을 통한 감독권 공유 이슈만이 부각되고 있으나 보다 더 근본적인 감독구조, 감독내용 등의 재구성 관점에서 한국은행의 감독권 문제도 다루어져야 함.

– 재정기조, 위기대응 모드 탈피하여 경제구조개선 지원 관점에서 검토
  • 첫째, 내년 예산긴축으로 재정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인식이 필요
  • 둘째, 지출구조의 변화, 검증 가능한 전달체계의 구축 등을 통한 지출효과 극대화 혹은 효율적 배분을 모색
  • 셋째, 감세, 규제완화 등 다각적 수단을 통해 경제구조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

제 I 장

최근 경제동향 및 평가

1. 최근 경제동향
2. 현 경기상황에 대한 종합 평가

1. 최근 경제동향

(1) 성장률

■GDP증가율: 전기비는 2분기 연속 플러스, 전년동기비는 감소세 완화

– 전기비(%): -5.1(2008. 4/4Q) → 0.1 (2009. 1Q) → 2.6(2Q)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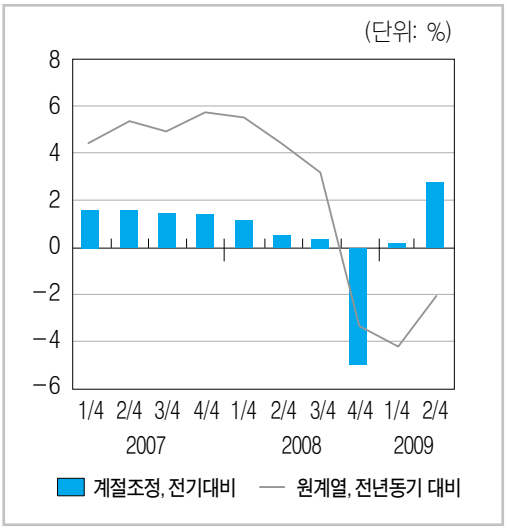
– 전년동기비(%): -3.4(2008. 4Q) → -4.2 (2009. 1Q) → -2.2(2Q)

■성장기여도: 순수출 성장기여도는 수입감소에 힘입어 큰 폭 증가했으며 내수부문도 감소폭 축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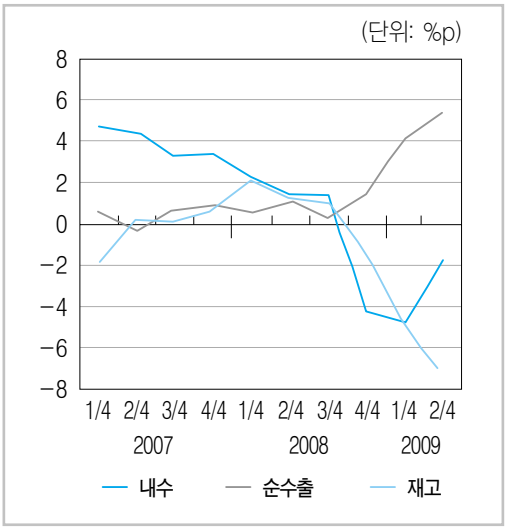
– 순수출의 성장기여도(%p): 4.1(2009. 1Q) → 4.5(2Q)

– 내수의 성장기여도(%p): -4.8(2009. 1Q) → -1.7(2Q)

<그림 I -1> GDP증가율



<그림 I -2> 부문별 성장 기여도



자료: 한국은행

(2) 생산

■제조업 생산: 하반기 들어 개선흐름 소폭 둔화

– 1월 이후 7개월 연속 플러스를 보이던 전월비 증가율이 8월(-1.3%)에는 감소세로 전환
  • 전년동월비 증가율은 7월, 8월 연속 2개월 플러스증가율을 보였으나 증가속도는 둔화: -9.6(5월) → -1.4(6월) → 1.0(7월) → 1.2(8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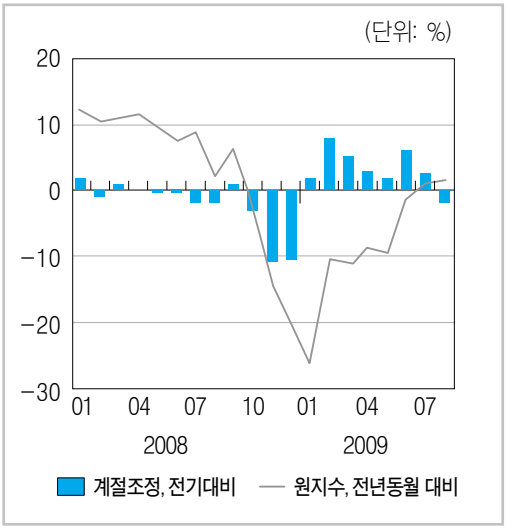
– (업종별) 반도체 및 부품, 자동차 등의 호조로 중화학공업이 7~8월 중 증가세로 반전된 반면 경공업은 여전히 마이너스 증가율 지속
  • 중화학공업(전년동기비%): -17.0(1Q) → -6.2(2Q) → 2.4(7~8월)
  • 경공업(전년동기비%): -13.5(1Q) → -8.8(2Q) → -5.8(7~8월)

■서비스업 생산: 개선속도 둔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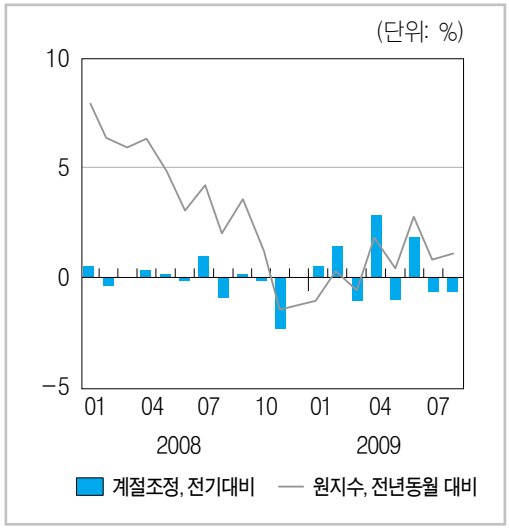
– 전월비 증가율 7월(-0.6%), 8월(-0.6%)

– (업종별) 7~8월 중 전년동월비 증가율
  • 금융 및 보험업(8.8%), 보건서비스업(8.9%), 부동산업 및 임대업(9.1%)은 증가세를 지속한 반면 도소매업은 6월(1.4%) 증가세에서 7~8월(-1.3%)에는 감소세로 전환. 운수업(-6.5%)은 감소세 지속

<그림 I -3> 산업생산



<그림 I -4> 서비스업 활동



자료: 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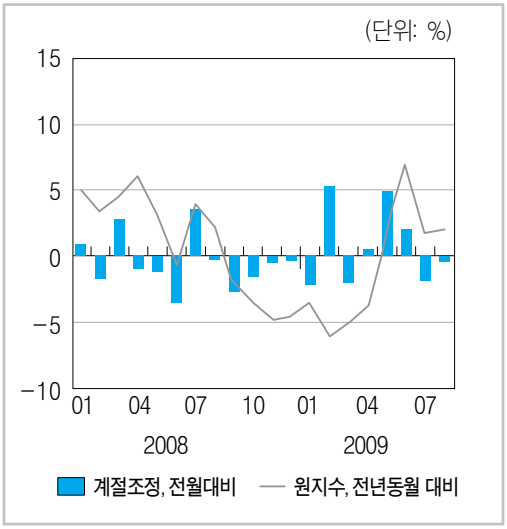
(3) 소비

■소비재 판매액: 7~8월 중 둔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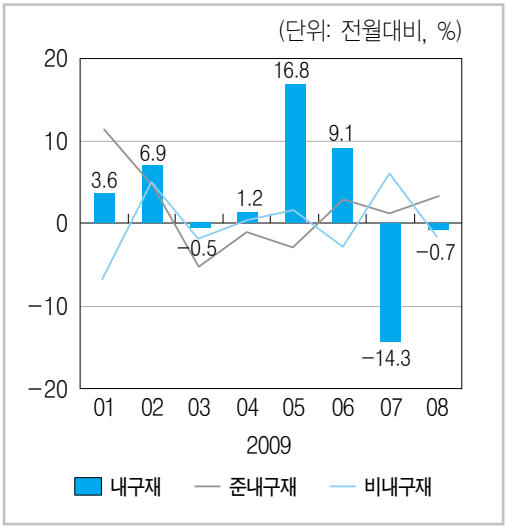
– 전년동월비는 큰 폭으로 둔화되었으며 전월비는 감소세로 반전
  • 전년동월비(%): 1.6(5월) → 7.5(6월) → 1.8(7월) → 2.0(8월)
  • 전월비(%): 4.9(5월) → 2.0(6월) → −1.7(7월) → −0.3(8월)

– 자동차 세제지원 축소 등으로 내구재소비가 감소세로 반전된 데 기인
  • 내구재(전월비%): 16.8(5월) → 9.1(6월) → −14.3(7월) → −0.7(8월)
  • 승용차 판매(전월비%): 43.6(5월) → 12.9(6월) → −22.5(7월) → −3.9(8월)

<그림 Ⅰ-5> 소비재 판매액



<그림 Ⅰ-6> 유형별 소비재 판매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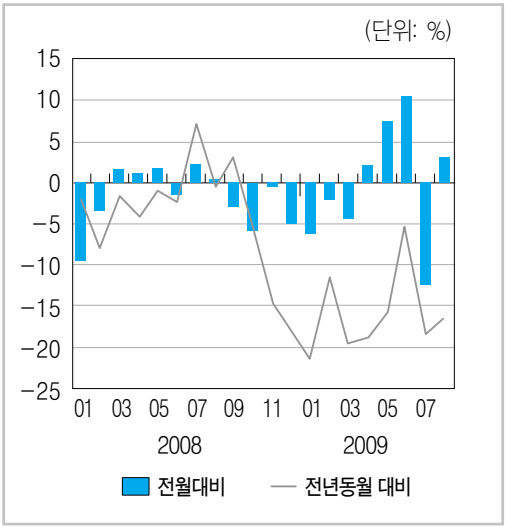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4) 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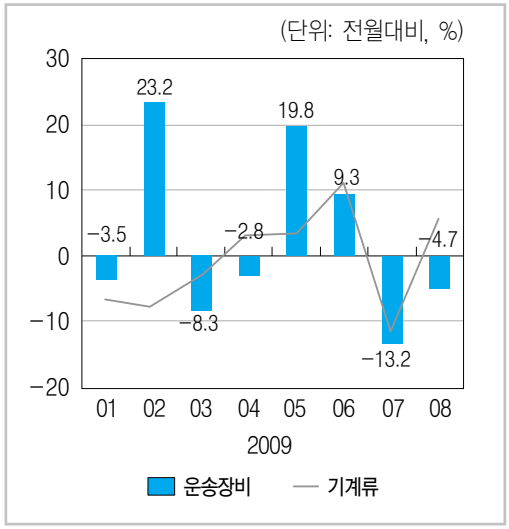
■설비투자: 5~6월 회복세를 보였으나 7~8월 중 다시 하락

– 자동차 세제지원 축소로 운송장비투자가 다시 부진해진 데 기인
  • 운송장비투자는 7월(−13.2%), 8월(−4.7%) 큰 폭 하락

〈그림 I - 7〉 설비투자



〈그림 I - 8〉 유형별 설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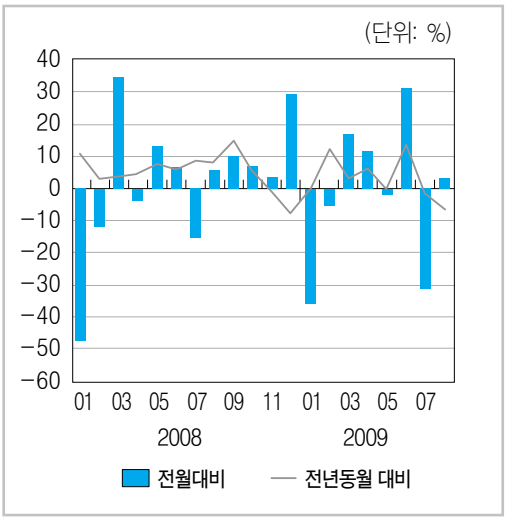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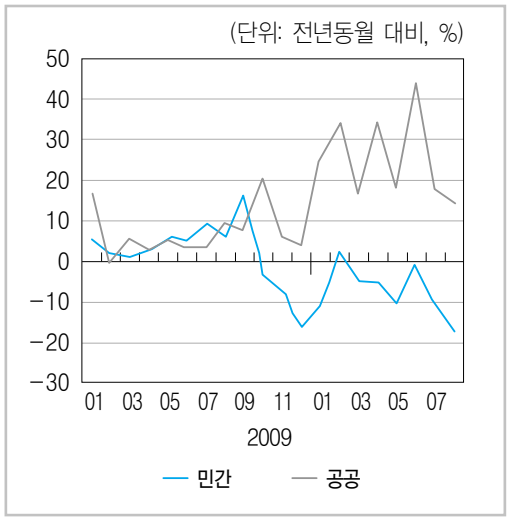
■건설투자: 7~8월 하락세

- 공공부문 건설증가에도 불구하고 민간부문 부진으로 7~8월 중 감소

〈그림 I - 9〉 건설투자



〈그림 I - 10〉 발주자별 건설



자료: 통계청

(5) 수출입 및 경상수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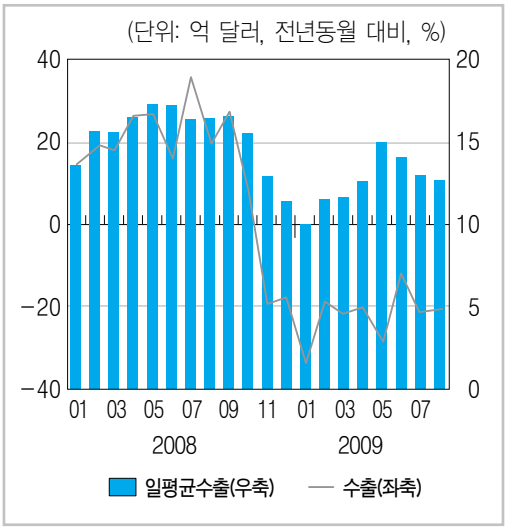
■수출: 회복 속도 둔화

– 환율하락의 영향으로 수출증가율, 일평균수출금액이 소폭 하락하는 등 수출 개선 흐름 약화
  • 수출증가율(전년동기비%): -25.2(2009. 1Q) → -20.5(2Q) → -21.2(7~8월)
  • 일평균수출액(억 달러): 11.0(2009. 1Q) → 13.1(2Q) → 12.7(7~8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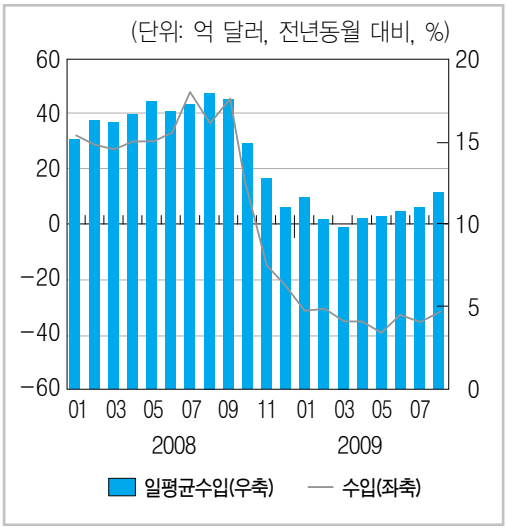
■수입: 점진적인 회복세 지속

– 환율하락, 유가상승, 내수반등의 영향으로 수입(달러금액)이 점진적인 회복세
  • 수입증가율(전년동기비%): -32.7(2009. 1Q) → -36.1(2Q) → -33.9(7~8월)
  • 일평균수입액(억 달러): 10.6(2009. 1Q) → 10.5(2Q) → 11.4(7~8월)

<그림 Ⅰ-11> 수출



<그림 Ⅰ-12> 수입



자료: 무역협회, 지식경제부

■경상수지: 1~8월 중 281억5천만 달러 흑자

– 경상수지 흑자폭은 소폭 감소하는 추세
  • 경상수지(억 달러): 54.3(6월) → 43.6(7월) → 20.4(8월)

– 상품수지는 수입이 수출보다 더 큰 폭의 감소세를 지속하면서 1~8월 중 355억6천만 달러 흑자

– 서비스수지는 원화약세, 신종플루 감염 우려 등의 영향으로 여행수지 적자가 큰 폭으로 축소되면서 지난해에 비해 적자폭이 감소
  • 서비스수지(억 달러): -138.0(2008. 1~8월) → -95.9(2009. 1~8월)

〈표 I -1〉 경상수지

(단위: 억 달러)

구 분	2008년					2009년			
	1/4	2/4	7~8월	1~8월	연간	1/4	2/4	7~8월	1~8월
경상수지	-52.1	-1.3	-72.3	-125.8	-64.1	85.8	131.7	64.0	281.5
상품수지	-12.2	57.2	-25.9	19.2	59.9	83.5	176.3	95.9	355.6
서비스수지	-50.7	-42.7	-44.6	-138.0	-167.3	-18.8	-40.2	-36.9	-95.9
여행수지	-30.2	-27.7	-25.9	-83.7	-80.5	5.2	-10.7	-15.5	-21.0
사업서비스수지	-29.1	-29.0	-26.8	-84.9	-145.1	-32.3	-39.9	-24.0	-96.2
소득수지	16.9	-6.5	5.6	16.1	51.1	8.3	1.8	10.7	20.8
경상이전수지	-6.1	-9.4	-7.5	-23.1	-7.7	12.8	-6.1	-5.7	1.0

자료: 한국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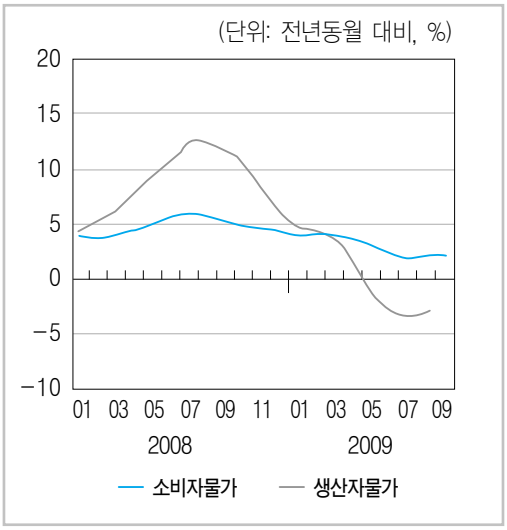
(6) 물가

■소비자물가 상승률: 7월을 저점으로 반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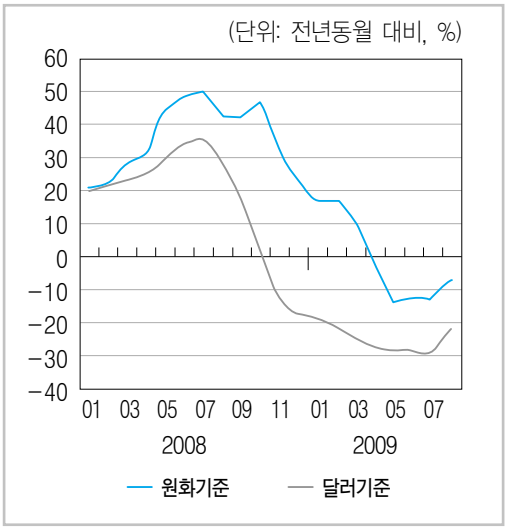
– 7월까지 기저효과 및 유가안정으로 물가상승률은 하향세 지속
  • 지난해 1~7월 중 물가상승률 지속적 확대
  • 유가 및 원자재 안정에 따른 수입물가 하락, 수요부진 등에 기인
  • 최근에는 유가상승에도 불구하고 환율하락이 물가안정 요인으로 작용

– 8~9월에는 유가상승, 경기회복 기대감 등으로 물가상승률이 소폭 반등
  • 소비자물가(전년동월비%): 2.0(6월) → 1.6(7월) → 2.2(8월) → 2.2(9월)
  • 생산자물가(전년동월비%): -3.1(6월) → -3.8(7월) → -3.0(8월)
  • 수입물가도 7월을 저점으로 반등

<그림 Ⅰ-13> 소비자 · 생산자물가



<그림 Ⅰ-14> 수입물가



자료: 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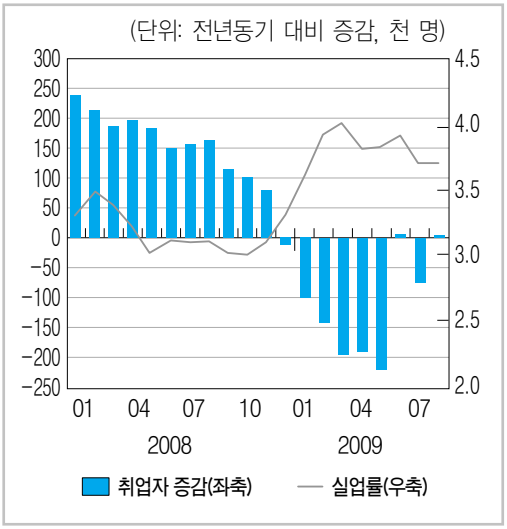
(7) 고용

■고용지표: 추경을 통한 일자리 사업으로 소폭 개선

– 취업자수 감소세 완화: 6월과 8월 증가세 시현
  • 취업자 증감(천 명): -219(5월) → 4(6월) → -75(7월) → 3(8월)
  • 산업별로는 사업 · 개인 · 공공서비스부문만 큰 폭의 고용 증가, 나머지 부문은 감소 지속

– 이에 따라 실업률도 연초에 비해 소폭 하락
  • 실업률(%): 3.8(5월) → 3.9(6월) → 3.7(7월) → 3.7(8월)

<그림 I -15> 취업자 증감 및 실업률



<그림 I -16> 산업별 취업자 증감

(단위: 천 명)

구 분	2009년			
	1/4	2/4	7월	8월
전체취업자	-146	-134	-76	3
농림어업	14	-25	-22	-34
제조업	-163	-151	-173	-139
건설업	-43	-113	-127	-105
도소매·음식숙박	-115	-136	-165	-153
사업·개인·공공서비스	236	341	469	46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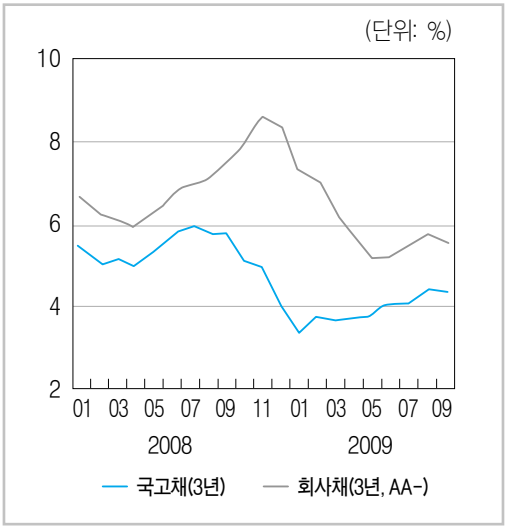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8) 금융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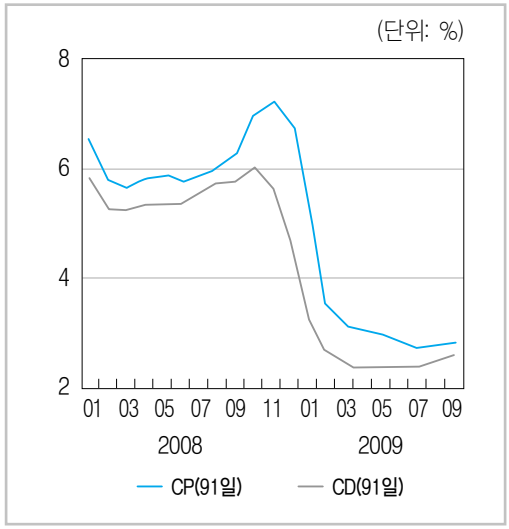
■시장금리: 최근 기준금리 인상 기대로 상승

– 경기회복 기대, 정책금리 인상 기대를 반영하여 오름세
  • 국고채(3년, %): 4.09(6월) → 4.09(7월) → 4.42(8월) → 4.40(9월)
  • 회사채(3년, AA-, %): 5.21(6월) → 5.46(7월) → 5.74(8월) → 5.58(9월)

<그림 Ⅰ-17> 국고채 및 회사채



<그림 Ⅰ-18> CD 및 CP금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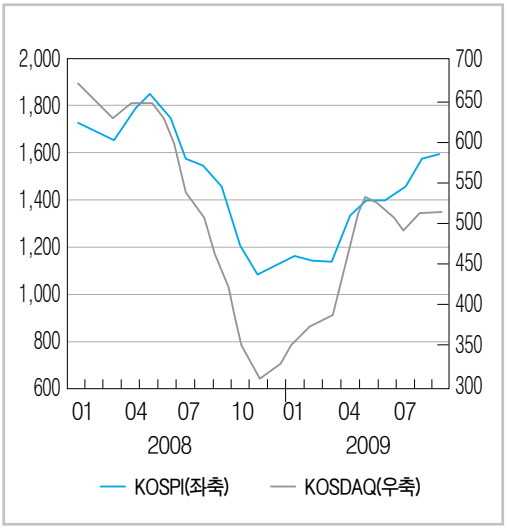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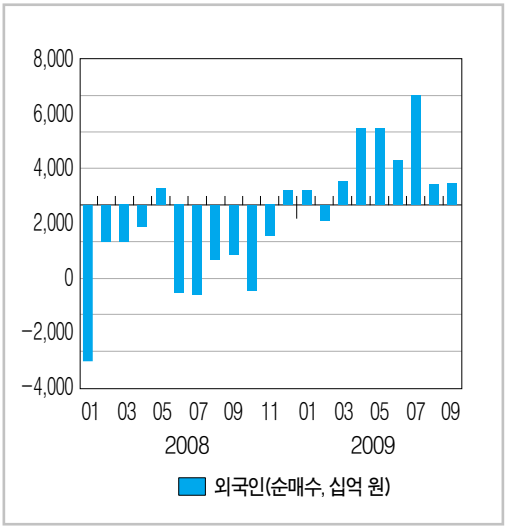
■금융시장 안정과 실물경기 회복 기대감으로 주가 상승세

– 5월 하순 북핵실험, 차익실현 매물 등으로 일시적 조정을 겪었으나 6월 말 이후 국내외 실물지표 및 기업실적 개선 발표 등으로 재상승
  • 외국인 주식순매수 3월 이후 지속

<그림 I -19> 코스피 및 코스닥 추이



<그림 I -20> 외국인 순매수



자료: 한국은행

(9) 원/달러 환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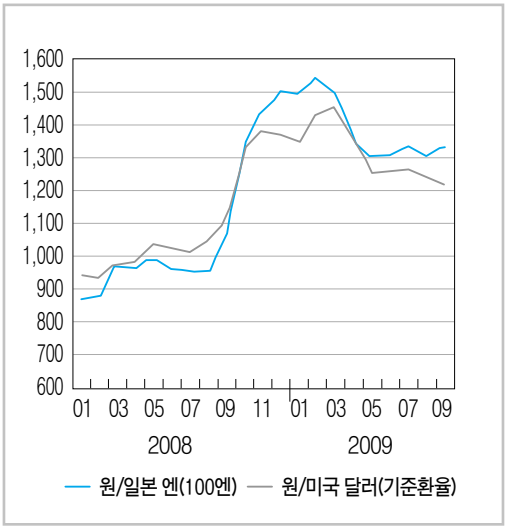
■원화가치, 3월 이후 강세로 전환

– 원/달러 환율 경상수지 흑자, 외화자금 조달 여건 개선, 외국인 주식순매수 등으로 강세
  • 원/달러: 1,261(6월) → 1,264(7월) → 1,238(8월) → 1,219(9월)
  • 원/100엔: 1,305(6월) → 1,338(7월) → 1,304(8월) → 1,332(9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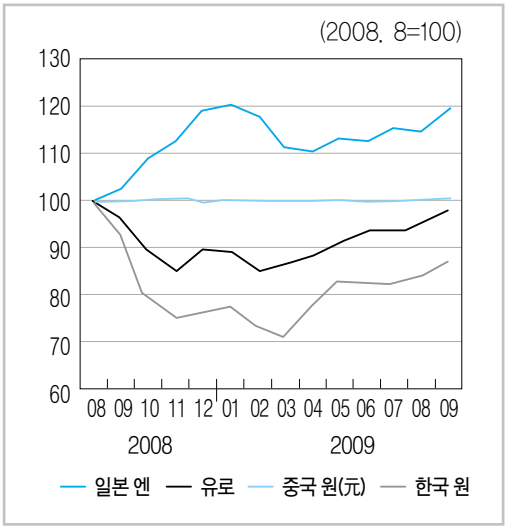
■하지만 원화가치 타 통화에 비해 추가절상 가능성

– 지난해 9월 리먼사태 이전에 비해 원화가치는 약 90% 수준
  • 엔화는 120% 수준, 유로화는 98% 수준 회복
    → 원화가치의 추가적 상승 여지

<그림 Ⅰ-21> 원화 환율



<그림 Ⅰ-22> 對달러 환율



자료: 한국은행

2. 현 경기상황에 대한 종합 평가

■상반기 중 생산 및 수요의 개선흐름으로 침체국면을 빠르게 벗어나는 모습을 보여줌.

– 제조업 생산이 1월 이후 꾸준한 증가세를 보였고 서비스업도 4월 이후 증가세를 유지
  • 수요측면에서도 소비, 건설, 수출 등이 개선되면서 GDP는 2분기에 2.6% 증가

■향후에도 이러한 개선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이나 속도는 다소 완만해질 것으로 판단됨.

– 상반기 회복세의 상당부분 재정지출 및 세제지원 효과, 환율효과에 의존
  • 정부부문의 소비와 투자가 2009년 1분기와 2분기의 성장률을 각각 1.8%p, 1.9%p 정도 제고시킨 것으로 추정됨.

〈표 I – 2〉 GDP성장률 및 정부부문 기여도

(단위: 전년동기비, %, %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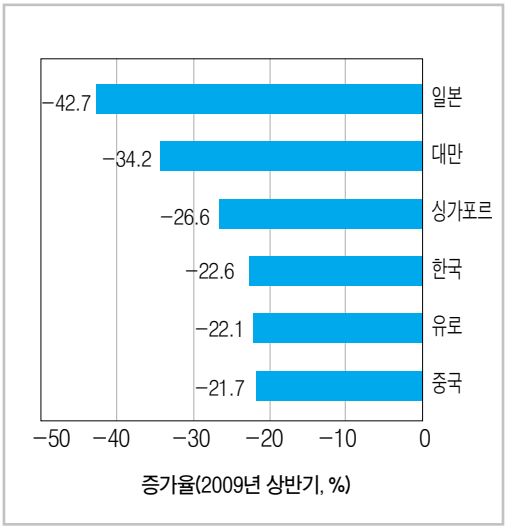
구 분	2008년				2009년	
	1/4	2/4	3/4	4/4	1/4	2/4
GDP	5.5	4.3	3.1	−3.4	−4.2	−2.2
정부부문(소비 · 투자) 성장기여도	0.2	0.5	0.6	0.6	1.8	1.9

자료: 기획재정부, 「경기회복 및 지속성장을 위한 내수기반확충방안」, 9. 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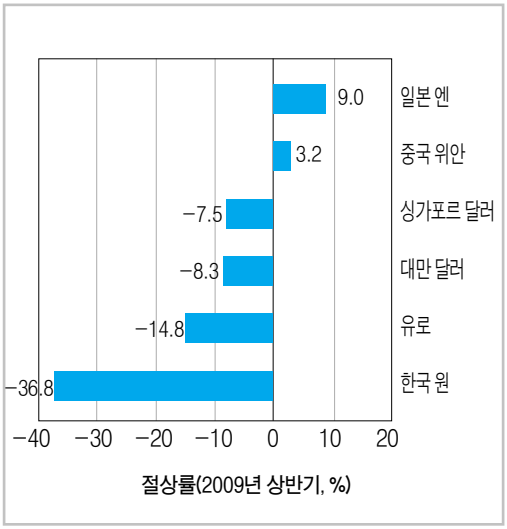
  • 수출감소세가 주요 경쟁국에 비해 완화된 것도 원화가치가 상반기 중 전년동기 대비 36.8% 하락한 영향이 크게 작용

– 따라서 환율효과가 소멸되고 재정효과가 축소되었을 경우 현 회복국면이 다시 약화될 가능성
  • 하반기 들어 소비 및 투자 지표들이 감소세로 전환된 것은 재정효과의 축소에 기인
  • 수출의 경우도 8월 감소세가 확대된 것은 환율효과 상쇄에 기인

〈그림 Ⅰ-23〉 주요국 수출



〈그림 Ⅰ-24〉 주요국 통화가치



자료: 한국은행

제 II 장

국내경제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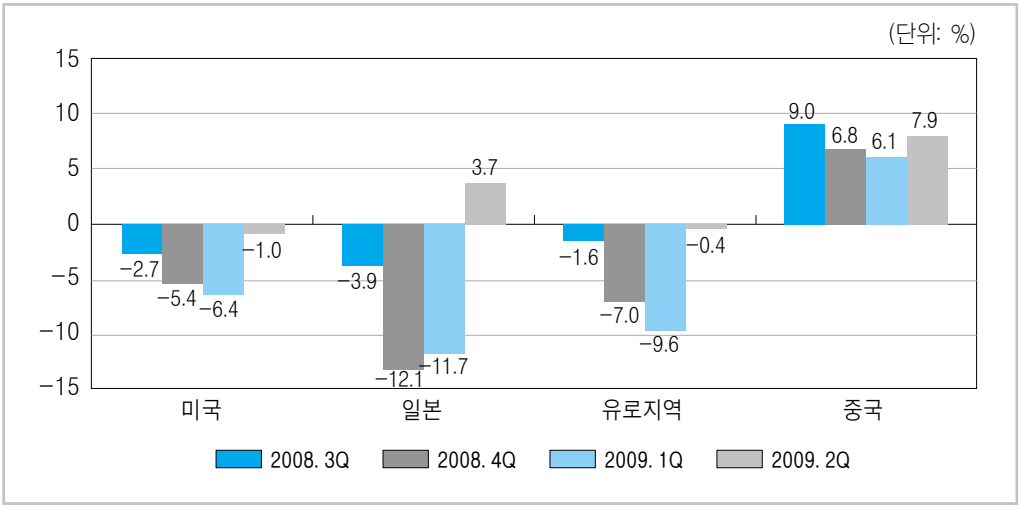
1. 대내외 여건
2. 2010년 국내경제전망

1. 대내외 여건

■세계경제, 내년 약 3% 성장세 회복

– 주요국 성장률, 적극적인 재정 · 금융 확대정책에 힘입어 2/4분기 이후 빠른 개선 속도를 보이고 있음.
  • 미국 성장률은 1분기(-6.4%)에서 2분기(-1.0%)로 대폭 개선
  • 유로지역은 2분기 성장률이 당초 예상(-2.4%)보다 높은 -0.4% 기록
  • 특히 일본은 2분기 성장률이 플러스(3.7%)로 대폭 반전
  • 중국 경제도 내수 부양책의 효과로 약 8%의 성장세 회복

<그림 Ⅱ-1> 최근 주요국 성장률 추이



주: 미국, 일본 유로지역은 전기비 연율(%), 중국은 전년동기비(%)

– IMF와 OECD는 하반기 이후에도 이러한 흐름이 지속되면서 내년 세계경제 성장률이 플러스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
  • 하지만 출구전략의 시행 등으로 선진국들의 회복세는 대부분 1%대 전후에 그칠 전망
  • 또한 보호무역주의 확산, 고용부진에 따른 미국 등 선진국의 소비회복 지연 등은 세계경제 회복세의 하방위험으로 작용

<표 Ⅱ-1> IMF와 OECD의 주요국 성장률 전망

(단위: %)

구 분	2008년[2]	2009년		2010년	
		IMF	OECD[1]	IMF	OECD[1]
세 계	3.1	−1.1	−2.2	3.1	2.3
미 국	1.1	−2.7	−2.8	1.5	0.9
일 본	−0.7	−5.4	−6.8	1.7	0.7
유 로	0.8	−4.8	−4.1	0.0	−0.3
중 국	9.0	8.5	7.7	9.0	9.3

주: 1) OECD 평균 2) 2008년은 IMF 통계임.
자료: IMF, *World Economic Outlook*, Sep. 2009.
OECD, *OECD Economic Outlook*, June. 2009.

■국제유가, 제한적인 상승세

- 국제유가는 최근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 및 각국의 유동성 확대에 기인한 투기수요 등으로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음.
- 세계경제 성장률이 플러스로 기대되는 내년 중에도 원유수요 증가가 기대되면서 국제유가는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일 전망
- 하지만 세계경제의 성장세가 완만할 것으로 전망되는데다 글로벌 달러 약세 기조 완화로 인한 원유 투기수요 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상승폭은 크지 않을 전망

<표 Ⅱ-2> 해외 주요기관의 유가 전망

(단위: 달러/bbl)

구분	유종	2008년	2009년					2010년
			1/4	2/4	3/4	4/4	연간	연간
CERA	Dubai	93.6	44.9	59.2	66.1	69.0	59.8	63.3
EIA	WTI	99.6	42.9	59.5	67.4	70.0	59.9	72.4

주: CERA는 미 캠브리지 에너지 연구소이며 전망시점은 2009. 8. 6
EIA는 미 에너지정보청이며 전망시점은 2009. 8. 11

■원/달러 환율, 완만한 하락세 지속

– 글로벌 달러 약세, 경상수지 및 자본수지 흑자에 따른 달러 공급우위 기조 등으로 원/달러 환율의 하락세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

– 내년 중에도 원/달러 환율의 하락세가 지속되겠으나 경상수지 흑자 축소, 글로벌 달러 약세 기조 완화 등으로 하락속도는 완만할 전망
  • 올해 300억 달러에 가까운 경상수지 흑자는 내년 중에는 약 100억 달러대로 감소할 것으로 보여 달러공급 우위기조가 약화
  • 또한 미국경제가 유럽이나 일본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빠른 회복세가 예상되는 데다 내년 1/4분기 중 금리인상이 예상되면서 달러약세가 완화될 것으로 보임.
  • 해외투자은행들은 2010년 달러화가 유로화 및 엔화에 대해 강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

〈표 Ⅱ-3〉 주요 해외투자은행들의 환율전망

구 분	엔/달러			달러/유로		
	3개월 후	6개월 후	12개월 후	3개월 후	6개월 후	12개월 후
평 균	94.23	96.51	100.64	1.4418	1.4300	1.4171
최 고	105.00	110.00	112.00	1.5500	1.5000	1.5500
최 저	85.00	89.00	90.00	1.3000	1.2600	1.2100

주: JP Morgan 등 12개 투자은행들의 전망치이며 전망시점은 9. 9~9. 14.
자료: 국제금융센터

■한은, 내년 1/4분기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

– 3/4분기 중에도 실물경기 개선속도가 가시화되고 집값 상승세가 지속될 경우 금리 인상시기가 당겨질 수 있음.
  • 한은 총재도 "금융완화 기조의 폐단이 어느 부분에서 크게 나타나고 확산된다면 정책기조를 재고해 볼 수밖에 없다"고 언급하는 등 연내 금리인상의 가능성 시사

– 하지만 연내 취약한 현 경기회복세를 고려할 때 금리인상은 내년으로 미루어질 가능성이 높음.
  • 우선 고용과 설비투자 부진이 계속되고 있어 민간부문이 자생력을 회복했다고 판단하기 쉽지 않음.
  • 더구나 금리인상에 따른 환율절상 가속화, 가계의 이자부담 증가 등은 연내 금리인상의 부담요인으로 작용
  • 또한 DTI 강화 등 부동산 대책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일정 정도의 시간이 필요

■내년 예산, 2009년 본예산 대비 2.6% 증가

– 국회에 제출한 정부의 내년 예산(총지출 기준)은 291조8천억 원으로 예년에 비해 낮은 증가율
  • 2009년 본예산(284조5천억 원)에 비해서는 2.6% 증가, 추경예산(301조8천억 원)과 비교해서는 3.3% 감소한 수준
  • 2005~2009년 평균 예산증가율 7.9%에 비해 크게 낮은 증가율

<표 Ⅱ-4> 2005~2010년 재정규모

(단위: 조 원, %)

구 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05~2009년
재정규모	209.6	224.1	234.8	257.2	284.5	291.8	
증가율		6.9	4.8	9.5	10.6	2.6	7.9

자료: 기획재정부

■2010년 국내경제전망의 주요 전제

– 이상의 대내외 여건을 기초로 전망의 전제조건을 다음과 같이 설정
  • 주요국 성장률은 IMF전망(2009년 9월)을 기초로 하였음.
  • 두바이유는 2009년 62달러, 2010년은 75달러로 가정하였는데 이는 앞서 살펴본 CERA, EIA 전망치보다는 높음.

• 기준금리는 1/4분기 이후 0.25%p씩 4회 인상
• 원/달러 환율은 완만한 하락세를 예상, 2010년 평균 1,145원을 가정

〈표 Ⅱ-5〉 전망의 주요 전제조건

외생변수	단위	2009년	2010년
GDPCH(중국 성장률)	%	8.5	9.0
GDPJP(일본 성장률)	%	−5.4	1.7
GDPUS(미국 성장률)	%	−2.7	1.5
OIL$DUBAI(두바이)	$/bbl	62.0	75.0
RP(기준금리, 기말)	%	2.00	3.00
ER(원/달러 환율, 평균)	원/$	1,279	1,145

2. 2010년 국내경제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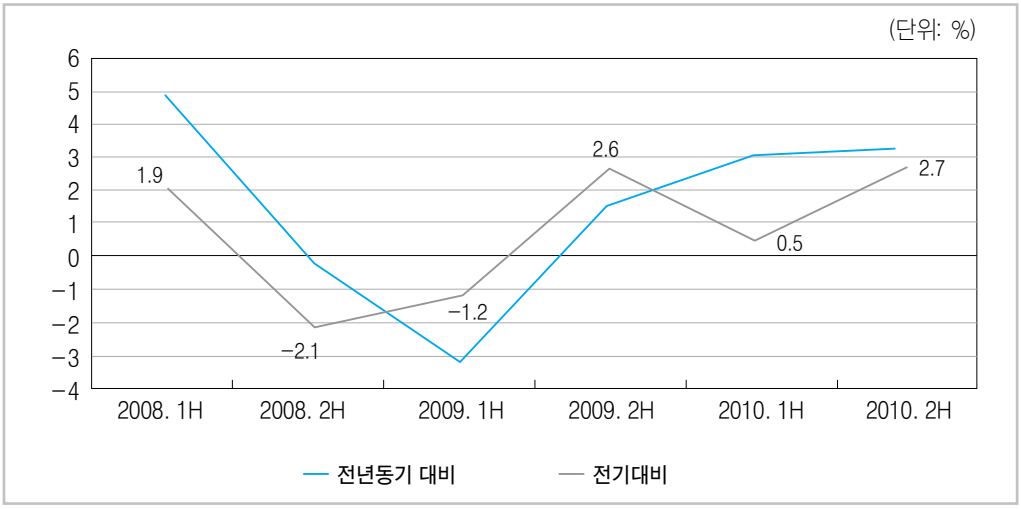
■ 경제성장률: -0.8%(2009년) → 3.2%(2010년)

- 2009년 2/4분기 이후의 경기회복세가 지속되면서 하반기 성장률은 플러스로 전환: 상(-3.2%) → 하(1.5%)
  - 상반기 중의 재정효과가 하반기로 이연되고 하반기 중에도 재정확대기조는 유지될 전망
  - 지난해 하반기 마이너스 성장(-0.3%)에 대한 기저효과도 작용

- 2010년 성장률은 세계경제의 회복세, 기저효과 등으로 플러스가 예상되지만 재정효과 소멸 등으로 연간 3.2%에 그칠 전망
  - 2010년 예산규모는 2009년 본예산에 비해 약 2.6% 정도 증가한 수준으로 예년의 증가율을 크게 하회할 전망

- 반기별로는 상반기(전기비 0.5%)에 비해 하반기(전기비 2.7%)가 높아 W자형의 회복국면이 예상됨.

<그림 Ⅱ-2> 실질GDP증가율(반기별)



■민간소비: -0.4%(2009년) → 2.9%(2010년)

- 2009년 하반기 민간소비는 GDP와 유사한 회복세를 보일 전망: 상(-2.6%) → 하(1.8%)
  - 고용불안이 지속되겠으나 저금리에 따른 이자부담 완화, 자산가격 상승에 따른 구매력 보전이 민간소비의 회복세에 기여

- 2010년 민간소비는 고용 및 임금개선, 환율 하락, 자산가격 상승 등으로 올 하반기 이후의 회복세를 이어가겠지만 금리인상 및 물가상승 등이 구매력 제약요인으로 작용하면서 성장률보다는 낮은 증가율(2.9%)을 보일 전망
  - 경기의 점진적인 회복과 함께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1] 등으로 취업자는 완만한 증가세를 보일 전망
  - 가계대출은 올 6월 말 현재 약 661조 원으로 금리 상승 시 가계부문에 잠재적인 위험요인이 될 수 있음.
  - 또한 총부채상환비율(DTI) 강화 등 부동산 대책 등으로 집값 상승세가 둔화되고 주식시장도 상승세가 조정되는 양상을 보일 전망

■설비투자: -14.5%(2009년) → 9.0%(2010년)

- 2009년 하반기 설비투자는 상반기에 비해서는 개선되겠으나 마이너스를 벗어나지 못할 전망: 상(-19.5%) → 하(-9.2%)
  - 7~8월 중 전년동기비 약 18% 감소하는 등 설비투자 부진 지속
  - 하지만 선행지수인 국내 기계수주가 하반기 들어 감소세가 완화되는 등 점차 회복: -33.8%(2009. 1Q) → -14.1%(2Q) → -4.7%(7~8월)

- 2010년 설비투자는 국내외 경기 회복, 정부의 투자 인센티브, 환율하락 등에 따른 투자여건 개선과 2008~2009년간 투자부진으로 인한 투자압력 상승으로 9%의 비교적 높은 회복세를 보일 전망

1) 정부는 희망근로 프로젝트 연장 등을 통해 내년 연간 공공부문 일자리를 올해(40만 명)보다 많은 55만 명으로 확대할 계획

- 정부는 설비투자펀드 조성, 수출금융 확대, 규제완화, 녹색성장 지원 등 기업투자 유인책을 내년 중에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전망
- 원/달러 환율의 하락은 수입원자재가격의 하락으로 이어지면서 설비투자의 증가요인[2]이 될 것으로 기대
- 2008년 4분기 이후 투자가 감소세로 전환되면서 크게 하락한 설비투자조정압력과 제조업 평균가동률이 최근 빠르게 회복되는 추세를 보이는 것도 향후 설비투자의 증가요인으로 작용

〈표 Ⅱ-6〉 설비투자조정압력 및 제조업 평균가동률 추이

(단위: %p, 전년동기비 %)

구 분	2008년				2009년		
	1/4	2/4	3/4	4/4	1/4	2/4	7~8월
설비투자조정압력(a-b)	5.1	2.8	0.3	-15.6	-18.9	-8.7	-1.7
a. 제조업생산증가율	11.1	9.3	5.6	-12.1	-16.4	-6.7	1.0
b. 제조업생산능력증가율	6.0	6.5	5.3	3.5	2.5	2.0	2.7
제조업 평균가동률(%)	80.8	80.4	78.3	69.3	65.8	73.7	78.2

자료: 통계청

■건설투자: 3.5%(2009년) → 1.3%(2010년)

- 2009년 하반기 건설투자는 민간부문의 부진에도 불구하고 SOC부문에 대한 재정확대 등의 효과로 증가세 지속: 상(2.8%) → 하(4.0%)
  - 2009년 본예산 중 SOC에 배정된 금액은 24조7천억 원으로 전년(19조6천억 원)에 비해 26.0% 증액

- 2010년 건설투자는 SOC 투자증가세 정체, 민간건설의 완만한 회복세 등으로 1%대의 낮은 증가율을 기록할 전망

2) 환율 하락이 수출제품의 가격경쟁력 하락을 통해 설비투자를 감소시키는 효과는 느리게 반영되는 반면 수입품 가격하락은 즉각 반영됨에 따라 환율과 설비투자는 역의 상관관계를 보임.

• 4대강 사업을 포함한 전체 SOC 투자규모가 2009년 수준으로 유지[3]될 것으로 보여 내년 SOC 투자증가세는 0%대가 될 전망

<표 Ⅱ-7> 2005~2010년 SOC 예산

(단위: 조 원, %)

구 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SOC예산	18.3	18.4	18.4	19.6	24.7	24.8
증가율		0.9	0.0	6.5	26.0	0.3

주: 2010년은 정부안
자료: 기획재정부

• 경기회복에 따른 수요 증가와 양도세 감면 등의 혜택에 힘입어 미분양이 감소하고 있지만 최근 부동산 대책 강화에 따른 부동산 경기 하락으로 민간건설부문의 회복은 미흡할 전망

<표 Ⅱ-8> 미분양 주택현황

(단위: 만 호)

구 분	2007. 12.	2008. 12.	2009. 7.	2009. 8.
계	112,254	165,599	140,186	133,779
수도권	14,624	26,928	24,010	23,362
지방	97,630	138,671	116,176	110,417
(준공 후)	17,395	46,476	51,775	48,358

자료: 국토해양부

3) 정부는 4대강 사업으로 SOC 사업이 위축된다는 지적을 의식해 2009년 수준의 규모의 예산배정. 4대강 사업(3조7천억 원)을 제외한 약 21조1천억 원이 4대강 사업 외의 SOC 사업에 배정

■경상수지: +304억 달러 (2009년) → +131억 달러 (2010년)

– 2009년 하반기 경상수지는 수입감소세 완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흑자폭이 축소될 전망: 218억 달러 → 87억 달러
  • 수출(달러금액)은 환율효과의 약화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반도체 등 주요 수출품의 경쟁력에 힘입어 감소세가 완화
  • 수입(달러금액)은 경기개선, 환율하락 등으로 수입수요 회복되는데다 유가상승에 따른 수입단가 상승으로 수출보다 빠르게 감소세를 줄여나갈 전망

– 2010년 경상수지는 수출보다 빠른 수입증가로 흑자규모가 2009년에 비해 크게 축소될 전망
  • 수출(달러금액)은 세계경기의 완만한 회복세에 따른 수요 증가, 주요 수출품의 단가상승에 힘입어 약 10%의 증가세를 보일 전망
  • 수입(달러금액)은 국내경기 회복, 수출용 수입 증가, 환율하락, 단가상승 등에 힘입어 수출보다 빠른 약 16%의 증가세를 보일 전망
  • 서비스수지는 우리 서비스산업의 취약한 경쟁력 및 환율하락의 영향으로 적자규모가 확대

■소비자물가: 2.9%(2009년) → 3.0%(2010년)

–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올 7월을 저점으로 상승세를 보이겠으나 하반기 전체로는 2%대 중반에서 안정될 것으로 전망
  • 원유를 포함한 수입원자재 가격의 상승이 환율하락에 의해 상쇄되면서 물가 오름세는 완만할 전망

– 2010년 소비자물가도 연간 약 3.0%의 물가안정목표 내의 상승률을 보일 전망
  • 경기회복세가 완만해 수요측면의 상승요인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환율하락세가 유가상승 등 비용요인을 일부 상쇄할 것으로 예상

■ 시장금리(회사채수익률): 5.8%(2009년) → 6.1%(2010년)

– 시장금리는 기준금리 인상, 경기회복 및 물가상승에 대한 기대감으로 점진적인 상승세를 보일 전망
  • 올 하반기에는 5.6%, 내년 상반기 5.9%, 하반기 6.3%로 상승

〈표 Ⅱ-9〉 2009~2010년 국내경제전망

(단위: 전년동기비(%), 억 달러(국제수지부문))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연간	상반기	하반기	연간	상반기	하반기	연간
GDP	2.2	−3.2	1.5	−0.8	3.1	3.2	3.2
(SA, 전기비%)		−1.2	2.6		0.5	2.7	
민간소비	0.9	−2.6	1.8	−0.4	3.4	2.3	2.9
건설투자	−2.1	2.8	4.0	3.5	−0.1	2.5	1.3
설비투자	−2.0	−19.5	−9.2	−14.5	8.7	9.2	9.0
수출(재화+서비스)	5.7	−7.1	1.4	−2.9	8.0	5.4	6.6
수입(재화+서비스)	3.7	−15.9	−3.6	−9.9	10.0	8.5	9.2
소비자물가	4.7	3.4	2.5	2.9	2.8	3.1	3.0
생산자물가	8.6	1.5	−1.4	0.0	2.8	2.4	2.6
경상수지(억 달러)	−64.1	217.5	86.6	304.1	81.2	49.7	130.9
상품수지(억 달러)	59.9	259.8	141.9	401.7	148.7	103.8	252.5
수출(억 달러, BOP 기준)	4,334.3	1,679.5	1,872.9	3,552.4	1,900.6	1,997.0	3,897.6
증가율%	14.3	−24.1	−11.8	−18.0	13.2	6.6	9.7
수입(억 달러, BOP 기준)	4,274.3	1,419.7	1,730.9	3,150.7	1,752.0	1,893.2	3,645.2
증가율%	21.8	−34.5	−17.9	−26.3	23.4	9.4	15.7
서비스 · 소득 · 이전수지	−124.0	−42.2	−55.3	−97.6	−67.5	−54.1	−121.5
환율(원/달러, 평균)	1,099.5	1,352.0	1,205.0	1,278.5	1,150.0	1,140.0	1,145.0
회사채수익률(3yrs, AA−)	7.1	6.1	5.6	5.8	5.9	6.3	6.1
실업률(%)	3.2	3.8	3.7	3.7	3.8	3.5	3.6

제Ⅲ장

정책과제

1. 정책 우선순위 정립 필요
2. 당면 정책과제

1. 정책 우선순위 정립 필요

■ 글로벌 금융위기가 끝났다는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바람직한 정책기조에 대한 논란이 대두되고 있음.

– 이번 글로벌 위기 대응에는 다음과 같은 특수성이 존재했으며 이로 인해 정책기조 전환에 대한 논란이 한층 고조

• 첫째, 금융시스템 붕괴 방지를 위해 1930년대 이후 전례를 찾기 어려운 수준[4]의 엄청난 규모와 다양한 형태의 재원이 동원
  · 정책금리와 연동된 유동성 공급이라는 전통적 방식 외에도 비전통적 양적완화 정책(Quantitative easing)과 금융사에 대한 직접적 지원이 사용
  · 따라서 유동성 및 공적자금을 지원하고 관리하는 정책담당 주체는 중앙은행뿐만 아니라 재정담당 부처와 금융감독 당국도 함께 포함
  · 우리나라의 경험으로 보면 1997년 외환위기 직후와 유사

• 둘째, 실물 침체를 막기 위한 재정확대 등 지원규모가 크고 다양했음.
  · 대표적인 경우가 미국이 재정지출 및 감세조치와 더불어 내놓은 자동차산업 지원책, 소비자 지원책,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등
  · 대부분의 OECD국가와 중국 등 G20 국가들은 대규모 감세와 재정지출을 혼합한 경기부양책을 실행

– 하지만 위기 종식에 대한 기대에도 불구하고 주요국들은 '정책 축소 및 철회'(exit strategy)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에 아직도 신중한 입장[5]

4) 예를 들어 안순권, 『세계경제 회복세 점검 및 전망』 한경연 정책연구 2009-08, p.26, '〈표 1〉 오바마 정부의 금융시장 안정책 주요 내용' 참조.
5) 예를 들어 "Fed Signals Growth Return Insufficient to End Stimulus," Bloomberg, 2009. 9. 23.

■우리나라의 경우 금융 및 실물경제 위기가 비교적 심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책지원도 상대적으로 제한적이었음.

– 우리나라에서 행해졌던 금융시스템 및 거시경제 안정책은 상대적으로 규모가 제한적이었고 그나마 이미 철회과정이 진행 중

• 미국의 경우와는 달리 금리인하 이외 각종 지원책의 경우 현재 점진적으로 '정책축소 및 철회'가 진행 중인 상태[6)]
  · 한은 공개시장조작 대상 증권 확대 조치를 11월 축소할 계획이며 RP로 공급했던 유동성도 대부분 회수
  · 정부도 금융시장 안정과 은행 자본 수혈, 중소기업 지원 등을 위한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각종 비상대책'을 연장 없이 종료할 계획
  · 중소기업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 신용보증 비율 및 한도 확대, 중기대출 만기 연장 등 연말까지만 유지할 계획
  · 20조 원으로 출발한 은행자본확충펀드도 지금까지 3조9천억 원만 사용
  · 10조 원 계획이었던 채권시장안정펀드도 5조 원 조성 사용 후 2차 자금조성을 유보할 계획
  · 40조 원 한도로 조성한 구조조정기금의 올해 소진액도 목표치인 20조 원을 훨씬 미달할 것으로 전망

• 금융시장 안정책은 상대적으로 크지 않았으며 위기상황에서 외환시장 안정책이 더 주효하게 기여
  · 외화유동성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한은의 달러 공급조치는 종료단계이며 내년 2월 재연장하지 않을 계획
  · 정부의 대외채무 지급보증 실적도 저조하여 연말 종료 예상

– 따라서 정책기조와 관련한 논의의 초점은 부동산가격 안정을 위한 금리인상 여부 및 시점(timing)으로 집중된다고 볼 수 있음.

6) 이하 한국경제 2009년 9월 13일자 「위기대책 종료단계 진입했다」 참조.

– 금리인상에 앞서 부동산가격 안정이 경제정책의 최우선 순위인지, 만약 그렇다면 금리인상이 실효성 있는 정책수단인지 검토해 보아야 함.

• 정책순위와 관련해서 볼 때 성장잠재력 제고, 고용상황 개선, 균형발전 등에 비해 부동산가격 안정이 우선순위에 있다고 보기는 무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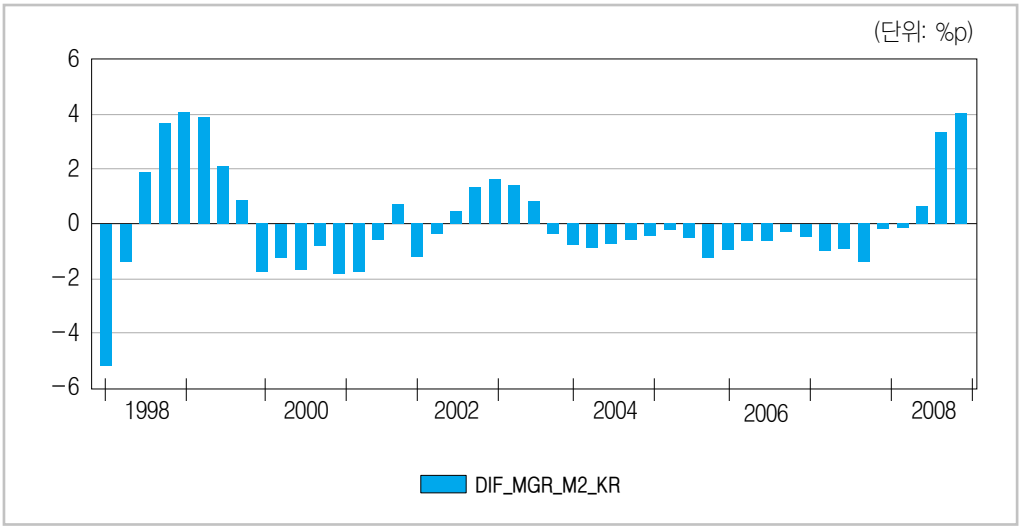
• 부동산문제가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정책과제라고 할 경우, 금융정책만으로는 집값안정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7]을 고려할 때, 금리정책 외에도 보다 더 직접적인 정책수단이 함께 동원되어야 할 것임.
· 참여정부 시절의 수요억제책을 선택적으로 채택 · 강화함은 물론이고 주택 공급 확대, 사교육 기관 분산 등을 고려해야 함. 물론 작년 수차례에 걸쳐 취해졌던 부동산 경기 활성화방안을 대폭 번복하거나 축소해야 할 것임.

– 유동성 과잉이라는 시각도 설득력이 약함. 진행 중인 '정책 축소 및 철회'가 어느 정도 완료되면 유동성문제도 완화될 것임.

• 유동성 비율 계산 등에 바탕을 두어 2008년 말 이후 유동성이 과다하다는 주장이 있음.
· 〈그림 Ⅲ-1〉에서 볼 수 있듯이 유동성 비율이 크게 증가한 시기는 1998년과 2008년 두 경우임. 두 경우 모두 심각한 경제위기가 전개되어 정책당국이 위기 진화에 전력투구하던 시기임.[8]
· 위기 기간 중 경제활동 대비 유동성 증가는 어쩌면 당연한 현상

7) 최근 한은총재 주재 9월 금융협의회 관련 기사, 한국경제 2009년 9월 18일자 「은행장들 "집값안정, 금융정책만으로 한계"」 참조.
8) 안순권, 「출구전략 논의의 배경과 대응방안」, 『KERI 경제전망과 정책과제』, 2009년 6월호, 한국경제연구원, p.83에서 인용.

〈그림 Ⅲ-1〉 우리나라의 유동성갭 비율 추이



– 물론 중장기적으로 견실한 경제활동을 지속하기 위해 자산가격 버블을 막고 물가 안정을 도모하는 것이 매우 바람직한 목표임.
  • 더 시급한 정책목표에 비추어 완급을 조절하는 것이 필요

■1997년 위기 이후 경험을 감안할 때, 글로벌 위기 종식 이후 정책 최우선 목표는 저하된 성장잠재력 복원

– 1998년 이후 우리 경제의 성장추세는 크게 낮아졌으며 이번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도 성장률 저하 현상이 재연될 가능성

  • 외환위기를 빠르게 극복하면서 1999년 9.5% 가파른 반등세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질GDP(굵은 실선)가 '추세선 A'(가는 실선)에 미치지 못함.
    · 추세선 A는 1970~1996년까지 실질GDP를 사용하여 추정한 것으로 1997년 이후는 추정기간 평균성장률 7.4%를 이용하여 연장한 것임.

  • 외환위기 이후의 경험이 2008년 이후에도 그대로 재연될 조짐. 〈그림 Ⅲ-2〉에서

보듯이 현재와 같은 회복세로는 2010년 중에도 추세선 복귀가 어려워 보임.
· 추세선 B는 1970~2007년까지의 실질GDP를 사용하여 추정한 것으로 2008년 이후는 추정기간 평균성장률 4.7%를 이용하여 연장한 것임.
· 실질GDP의 2009년 3분기~2010년 4분기는 전망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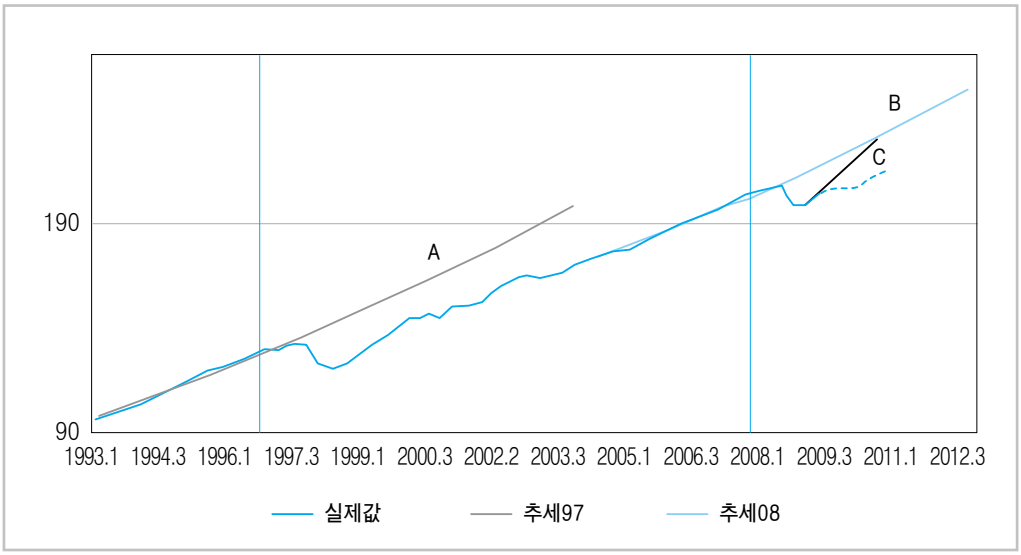
• 만약 2010년 말에 추세선 B에 복귀하려면, 즉 가상선 C궤도가 실현되려면, 2009년 0.2%와 2010년 9.7% 성장이 필요
· 복귀기간을 길게 잡는다 해도 어쨌든 추세선 B보다는 기울기가 큰 성장추세가 있어야 함을 의미

– 성장추세 저하에 대해 일부에서는 자연스러운 새로운 균형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나 이러한 시각을 또다시 수용할 경우 향후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추가적 하락이 불가피

• 만약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이는 한국경제가 개인소득 2만 달러 이하의 수준에 영구적으로 수렴하고 현재의 소위 '소득 2만 달러 트랩'이 균형상태일 가능성이 있음.

– 따라서 2008~2009년 위기에 따른 산출량 손실은 수용하되 향후 목표는 적어도 2007년까지 추세 성장률을 회복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함.
• 사실 고용부진으로 고용률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현 상황을 감안할 때 추세성장률 저하 가능성은 적지 않음.
• 1997년 이후 상황을 상기할 때 성장률 저하현상을 일종의 '자연스러운' 균형상태라고 받아들이는 시각은 경계해야 함.
• 올해의 재정확대는 경제위기 시 추가적인 침체를 완화하는 데 기여했지만 성장잠재력 복원을 위해서는 민간부문의 자생력이 뒷받침되어야 함.
• 따라서 성장잠재력 복원을 위한 근본적인 해법은 노동시장 유연성, 규제개혁 등 기업경영환경을 개선을 통한 투자와 고용의 확대임.

<그림 Ⅲ-2> 1997년 전후의 실질GDP와 추세



2. 당면 정책과제

■금리인상은 신중하게 접근

– 만약 집값 불안이 심각하고 이의 안정이 중요하다면 금리인상뿐만 아니라 다각적인 안정책이 시행되어야 할 것임. 금리 소폭인상만으로 집값안정이 달성될 가능성은 낮음.

– 향후 정책 금리의 완만한 상향조정이 있더라도 경제구조 개선이 병행하여 달성된다면 거시경제 부정적 효과는 최소화될 것임.

– 경제구조 개선이나 다각적인 집값안정 대책 없이 금리만 인상되면 비용증가에 따른 부담증가 악영향이 더 부각되고 경제활동 위축, 서민경제 위축에 따른 지원 요구 증대 등 부작용이 커질 수 있음.

■상환책임을 중시하는 신용지원 정책 수립

– 금융산업과 시장의 발전을 위해서는 개인이나 기관을 막론하고 시장참여자의 책임과 절제를 중요시하는 신용질서가 필수조건임.

– 민생안정 및 복지강화에 필요한 정책수립이라고 해서 상환능력 및 책임을 중요시하는 정상적 신용질서를 약화시키는 것은 위험

– 만약 민생안정을 위해 지원이 필요하면 시혜성 금융거래보다는 차라리 직접적인 지원이 더 바람직

■한은법 논의, 금융산업 재편과 감독체계 재구성 검토와 병행되어야

– 지금 선진국들의 초미의 관심사는 금융산업 재편과 감독체계의 근본적 재구성임.

– 하지만 금융산업확대는 물론이고 G20 의장국으로서 국제적 논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해야 할 입장에 비추어볼 때 국내의 관련 논의는 유명무실함.

– 현재 한은법 개정을 통한 감독권 공유이슈만이 부각되고 있으나 보다 더 근본적인 감독구조, 감독내용 등의 재구성 관점에서 한국은행의 감독권 문제도 다루어야 함.

■재정기조, 위기대응 분위기에서 탈피하여 경제구조개선 지원 관점에서 검토

– 첫째, 단기 경기순환적 관점에서 올 상반기 2%p 가까이 성장에 기여한 경기확장적 재정정책의 역할이 내년에는 철회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따른 효과에 대한 확실한 인식이 필요
  • 위기 국면 완화와 함께 경기순응적 재정정책의 축소는 자연스러운 정책변화. 민간부문의 자생력 회복이 일부의 낙관적 기대에 못 미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함.

– 둘째, 복지 지출증대 요구 등 재정수요에 대한 추세적 변화를 얼마나 빠르게 수용할 것인지, 증가 추세를 완화할 방안은 없는지 모색해야 함.
  • 복지지출 요구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이며 단기간에 큰 변화를 기대하기 어려울 전망
  • 따라서 지출구조의 변화, 검증 가능한 전달체계의 구축 등을 통한 지출효과 극대화 혹은 효율적 배분이 필요
  • 아울러 복지성 지출과 근로가능자의 노동시장 성과와 연계를 강화하여 근로의욕 고취와 노동시장 유연화에 기여할 수 있는 길을 모색
    · 예를 들어 실업 시 적절한 지원이 제공되면 사용자나 근로자에게는 해고비용을 낮추는 효과가 있는데, 이는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음.

– 셋째, 감세, 규제완화 등 다각적 수단을 통해 경제구조 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
  •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제고가 중요한 과제로 부상했음. 따라서 교육, 의료 및 기타 분야의 구조적 문제가 관련된 분야의 현행 조세나 지원체계와 연관이 없는지 살펴 개선책을 모색해야 함.

부록

주요 경제지표

경제성장률 · 소비 · 투자

구 분	경제성장률		1인당 GNI	소비		투자		
	GDP	제조업		민간	정부	총고정투자	설비	건설
	전년동기 대비(%)		US 달러	전년동기 대비(%)				
2004년	4.6	10.0	15,082	0.3	3.8	2.1	3.8	1.3
2005년	4.0	6.2	17,531	4.6	4.3	1.9	5.3	−0.4
2006년	5.2	8.1	19,722	4.7	6.6	3.4	8.2	0.5
2007년	5.1	7.2	21,695	5.1	5.4	4.2	9.3	1.4
2008년	2.2	3.1	19,231	0.9	4.2	−1.7	−2.0	−2.1
2004년 1/4	1.0	2.2		−0.9	3.6	2.3	−0.6	5.3
2/4	0.7	2.4		0.5	4.7	4.9	6.4	4.2
3/4	0.4	0.7		0.3	3.9	3.1	7.7	1.2
4/4	0.5	0.4		1.5	3.2	−1.4	1.8	−3.5
2005년 1/4	0.9	1.5		2.5	3.7	−0.3	3.4	−3.1
2/4	1.5	1.2		4.7	4.7	1.8	2.8	0.9
3/4	1.6	3.5		5.7	6.3	1.5	4.1	−0.3
4/4	1.1	2.5		5.5	2.7	3.9	10.8	0.3
2006년 1/4	1.7	2.2		5.7	6.0	3.8	7.2	1.9
2/4	0.6	0.5		4.5	6.7	0.1	8.0	−4.2
3/4	1.6	3.3		4.3	6.0	4.0	12.0	−0.5
4/4	0.6	−0.9		4.5	7.5	5.7	5.7	5.1
2007년 1/4	1.5	2.0		4.9	5.9	7.3	12.6	4.4
2/4	1.5	2.7		5.2	6.3	5.7	13.0	2.0
3/4	1.3	2.5		5.4	4.8	1.5	4.0	−0.2
4/4	1.3	2.4		4.7	4.7	3.1	8.0	0.4
2008년 1/4	1.1	1.2		4.0	3.6	−0.5	1.5	−1.9
2/4	0.4	1.7		2.3	4.0	0.6	1.1	−0.3
3/4	0.2	0.1		1.4	4.5	1.8	4.3	0.2
4/4	−5.1	−11.9		−3.7	4.7	−7.3	−14.0	−5.6
2009년 1/4	0.1	−3.4		−4.4	7.3	−8.1	−23.5	1.6
2/4	2.6	8.9		−0.8	7.1	−2.7	−15.9	3.7

무역 · 국제수지

구 분	무 역				국 제 수 지		외환보유액[1] (기말)	대미환율 (기말)
	수출(FOB)		수입(CIF)		상품	경상		
	억 달러	전년동기 대비(%)	억 달러	전년동기 대비(%)	억 달러			원/달러
2004년	2,538.4	31.0	2,244.6	25.5	375.7	281.7	1,990.7	1,043.8
2005년	2,844.2	12.0	2,612.4	16.4	326.8	149.8	2,103.9	1,013.0
2006년	3,254.6	14.4	3,093.8	18.4	279.1	53.9	2,389.6	929.6
2007년	3,714.9	14.1	3,568.5	15.3	281.7	58.8	2,622.2	938.2
2008년	4,220.1	13.6	4,352.7	22.0	59.9	−64.1	2,012.2	1,257.5
2007년 5월	310.4	11.1	298.6	13.9	22.4	8.4	2,507.4	929.9
6월	320.0	14.5	285.1	9.5	32.1	12.7	2,507.0	926.8
7월	302.1	17.2	292.2	14.4	30.4	15.5	2,548.4	923.2
8월	310.0	13.6	296.4	9.7	29.1	5.7	2,553.0	939.9
9월	293.2	−1.1	271.9	−1.6	37.3	23.0	2,572.9	920.7
10월	344.3	22.9	327.4	27.8	36.4	24.6	2,601.4	907.4
11월	358.1	17.0	339.3	26.8	26.4	15.1	2,619.3	929.6
12월	330.3	14.8	339.0	23.2	4.4	−8.1	2,622.2	938.2
2008년 1월	322.7	14.9	363.2	31.8	−11.0	−27.5	2,618.7	943.9
2월	311.8	18.9	326.2	28.4	−6.0	−23.5	2,623.6	937.3
3월	359.9	18.4	371.1	26.7	4.7	−1.1	2,642.5	991.7
4월	378.5	26.4	382.6	29.3	16.3	−15.8	2,604.8	999.7
5월	393.9	26.9	387.0	29.6	6.1	−3.8	2,582.0	1,031.4
6월	372.6	16.4	378.3	32.7	34.8	18.2	2,581.0	1,043.4
7월	409.6	35.6	429.5	47.0	2.2	−25.3	2,475.2	1,008.5
8월	366.1	18.1	404.2	36.4	−28.0	−47.0	2,432.0	1,081.8
9월	374.3	27.6	395.3	45.4	−8.9	−13.5	2,396.7	1,187.7
10월	371.1	7.8	361.0	10.3	26.3	47.5	2,122.5	1,291.4
11월	288.4	−19.5	288.5	−15.0	8.4	19.1	2,005.1	1,482.7
12월	271.2	−17.9	265.8	−21.6	15.0	8.6	2,012.2	1,257.5
2009년 1월	211.3	−34.5	249.1	−31.6	−17.4	−16.4	2,017.4	1,368.5
2월	254.0	−18.5	225.8	−31.4	31.1	35.6	2,015.4	1,516.4
3월	278.9	−22.5	238.8	−35.7	69.8	66.5	2,063.4	1,377.1
4월	303.3	−19.9	247.4	−35.3	61.3	42.5	2,124.8	1,348.0
5월	280.6	−28.8	232.7	−39.9	48.8	35.0	2,267.7	1,272.9
6월	326.1	−12.5	254.1	−32.8	66.1	54.3	2,317.3	1,284.7
7월	319.9	−21.9	276.2	−35.7	61.3	43.6	2,375.1	1,240.5
8월	289.7	−20.9	272.6	−32.6	34.6	20.4	2,454.6	1,244.9
9월	349.7	−6.6	295.7	−25.1			2,542.5	1,188.7

주: 1) 가용외환보유액 기준

물가 · 실업 · 이자율

구 분	물가[2]		실업률	제조업	통화[3]		회사채	주가지수
	생산자	소비자	(계절조정)	명목임금	신M2	M3	수익률	80.1.4=100
	전년동기 대비(%)		(%)	전년동기 대비(%)			연%, 평균	기간평균
2004년	6.1(5.3)	3.6(3.0)	3.7	9.5	4.6	6.1	4.71	832.9
2005년	2.1(1.5)	2.8(2.6)	3.7	8.1	6.9	7.0	4.68	1,073,6
2006년	0.9(0.3)	2.2(2.1)	3.5	5.7	8.3	7.9	5.17	1,352.2
2007년	1.4(3.6)	2.5(3.6)	3.2	8.4	11.2	10.2	5.70	1,712.5
2008년	8.6(5.6)	4.7(4.1)	3.2	0.9	14.3	11.9	7.02	1,529.5
2007년 5월	1.4(1.8)	2.3(1.9)	3.2(3.4)	5.9	10.9	10.1	5.49	1,614.9
6월	1.7(2.0)	2.5(1.9)	3.2(3.3)	6.2	10.9	10.4	5.64	1,754.3
7월	1.6(2.2)	2.5(2.3)	3.2(3.4)	9.6	10.9	10.0	5.75	1,911.6
8월	0.9(2.1)	2.0(2.4)	3.1(3.2)	8.8	11.4	10.3	5.70	1,815.0
9월	1.0(2.6)	2.3(3.0)	3.0(3.2)	12.3	11.0	10.3	5.85	1,879.0
10월	2.2(2.8)	3.0(3.2)	3.0(3.1)	−0.6	10.8	10.4	5.98	2,004.6
11월	3.1(3.2)	3.5(3.2)	3.0(3.2)	5.9	11.3	10.4	6.16	1,924.8
12월	3.6(3.6)	3.6(3.6)	3.1(3.1)	6.7	11.5	10.6	6.73	1,903.6
2008년 1월	4.2(0.6)	3.9(0.5)	3.3(3.0)		12.5	11.4	6.64	1,732.3
2월	5.1(1.5)	3.6(0.8)	3.5(3.1)		13.4	11.6	6.27	1,689.5
3월	6.0(2.9)	3.9(1.8)	3.4(3.1)		13.9	11.9	6.13	1,651.2
4월	7.6(5.1)	4.1(2.4)	3.2(3.2)		14.9	12.7	5.91	1,776.6
5월	9.0(7.1)	4.9(3.2)	3.0(3.2)		15.8	13.1	6.22	1,846.8
6월	10.5(8.8)	5.5(3.9)	3.1(3.2)		15.1	12.7	6.68	1,858.2
7월	12.5(11.0)	5.9(4.6)	3.1(3.2)		14.8	12.1	6.99	1,569.6
8월	12.3(10.7)	5.6(4.4)	3.1(3.2)		14.7	11.8	7.11	1,537.5
9월	11.3(10.3)	5.1(4.5)	3.0(3.2)		14.5	12.2	7.46	1,446.6
10월	10.7(9.9)	4.8(4.4)	3.0(3.1)		14.2	11.9	7.95	1,201.7
11월	7.8(7.4)	4.5(4.1)	3.1(3.2)		14.0	11.4	8.85	1,074.0
12월	5.6(5.6)	4.1(4.1)	3.3(3.3)		13.1	10.4	8.35	1,114.9
2009년 1월	4.7(−0.3)	3.7(0.1)	3.6(3.3)		12.0	9.2	7.34	1,156.4
2월	4.4(0.4)	4.1(0.8)	3.9(3.5)		11.4	8.8	7.07	1,139.8
3월	3.5(0.8)	3.9(1.5)	4.0(3.7)		11.1	8.4	6.14	1,140.5
4월	1.5(1.0)	3.6(1.8)	3.8(3.7)		10.6	7.7	5.68	1,322.1
5월	−1.3(0.2)	2.7(1.8)	3.8(3.9)		9.9	7.3	5.16	1,400.5
6월	-3.1(−0.1)	2.0(1.7)	3.9(4.0)		9.6	7.0	5.21	1,395.2
7월	−3.8(1.1)	1.6(2.1)	3.7(3.8)		9.7	7.7	5.46	1,460.0
8월	−3.0(1.6)	2.2(2.4)	3.7(3.8)				5.74	1,577.9
9월		2.2(2.5)					5.58	1,659.5

주: 2) ( ) 안은 전년말월 대비 증가율
3) 평잔기준

산업활동

구 분	산업생산		수요관련지표						
	전 산업	평균 가동률(%)	소매 판매액	국내기계 수주[5]	설비투자 추계	건설 수주	건설기성	공공	민간
	전년동기 대비(%)								
2004년	10.3	80.1	1.1	6.3	3.6	−3.9	11.1	4.9	14.8
2005년	6.4	79.7	4.2	−2.8	5.9	7.3	4.1	−3.7	7.5
2006년	8.4	80.0	4.0	17.4	9.2	9.0	2.6	0.6	4.0
2007년	6.9	80.1	5.1	20.6	8.2	23.6	6.6	8.4	4.6
2008년	3.0	77.2	1.0	−12.8	−4.3	−9.0	4.7	6.5	1.7
2007년 5월	5.8	80.5	5.2	10.7	6.2	9.3	6.2	16.4	1.8
6월	6.7	80.4	3.5	−2.7	12.4	34.0	4.9	11.9	1.3
7월	13.6	80.6	8.9	37.1	6.6	−13.2	13.2	14.9	10.7
8월	9.0	81.1	5.8	2.3	2.9	15.6	8.5	5.0	8.4
9월	−3.0	78.6	6.6	24.1	−2.8	−9.3	−6.2	−7.3	−6.2
10월	16.1	81.9	6.9	48.9	7.5	104.6	8.8	−4.6	13.3
11월	7.7	81.0	4.7	56.0	8.5	48.7	5.9	8.8	3.0
12월	9.4	80.9	0.8	28.0	10.3	4.3	9.1	3.8	10.0
2008년 1월	11.7	81.3	5.2	51.2	−2.2	−9.3	10.5	16.5	5.6
2월	10.7	80.2	3.5	2.6	−8.0	−7.0	3.1	−1.0	2.6
3월	10.5	80.9	4.5	16.7	−1.5	3.6	3.6	5.5	1.0
4월	10.8	81.0	6.0	5.0	−4.2	−0.5	4.2	2.4	2.6
5월	8.9	80.0	3.1	−6.4	−1.1	16.4	7.5	5.0	5.9
6월	7.0	80.2	−0.7	0.0	−2.7	−23.0	6.6	3.1	5.3
7월	8.6	79.2	4.1	17.0	7.0	−13.2	8.7	3.2	9.2
8월	1.8	78.4	2.2	−9.0	−0.9	−8.1	8.3	9.5	5.9
9월	6.3	77.3	−1.9	−45.0	2.9	−39.8	14.8	6.9	16.7
10월	−1.9	77.3	−3.4	−46.4	−6.2	−23.7	5.1	20.4	−3.3
11월	−13.8	68.4	−4.7	−52.6	−14.9	−39.3	−1.3	5.7	−7.1
12월	−18.7	62.3	−4.5	−42.8	−18.4	30.7	−8.6	3.4	−16.2
2009년 1월	−25.5	61.4	−3.3	−47.4	−21.4	−15.0	−0.4	25.2	−11.4
2월	−10.0	66.9	−6.1	−26.2	−11.3	−20.7	12.0	34.0	2.3
3월	−10.5	69.2	−5.2	−23.7	−19.9	−14.7	3.0	16.5	−5.1
4월	−8.2	71.5	−3.9	−24.9	−18.9	−8.0	6.0	34.3	−4.8
5월	−9.0	72.9	1.6	−21.3	−16.2	−18.5	−0.7	17.4	−10.5
6월	−1.1	76.6	7.5	2.1	−4.9	17.9	15.2	44.1	−0.5
7월	0.9	78.8	1.8	7.3	−18.8	2.9	−2.3	17.5	−11.3
8월	1.2	77.6	2.0	−16.8	−16.6	−29.5	−6.8	14.3	−17.0

주: 4) 내수용 5) 내수용, 선박 제외

KERI 경제전망과 정책과제

1판1쇄 인쇄/2009년 10월 13일
1판1쇄 발행/2009년 10월 16일

발행처/한국경제연구원
발행인/김영용
편집인/허찬국

등록번호/제318-1982-000003호
(150-705)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7-3 하나대투증권빌딩 8층
전화(대표) 3771-0001 (직통) 3771-0057 팩시밀리 785-0270~1
http://www.keri.org/

ⓒ 한국경제연구원, 2009

한국경제연구원에서 발간한 간행물은
전국 대형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구입문의) 3771-0057

ISSN 1229-5396 5,000원